

## 토머스 스펜스의 원형적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영국 북동부의 뉴캐슬에서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1750~1814)는 처음부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다. 이런 점이 늦게 이 문제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토지 정의』라는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을 쓴 토머스 페인(Thomas Paine)(1737~1809)과 다른 점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글인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는 스펜스가 스물다섯 살 때 했던 강연의 초록인데, 이미 여기에 사적 소유가 강탈이고 토지의 공유재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당대에 있었던 잉글랜드 농촌의 변화였다. 역사적으로 “2차 인클로저운동” 혹은 “의회 인클로저운동”이라 불리는 사

태로 인해 토지 경작권과 소유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토지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농업 경영자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관습적 권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노동자cottager와 공유지 점유자squatter는 공유지에 울타리가 세워지면서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된다.

스펜스가 살았던 뉴캐슬에서 이를 경험한 것이 ‘타운 무어 사건’이다. 시의회가 공유지인 타운 무어의 일부를 경작과 개량을 위해 임대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에 맞서 공유지의 관습적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투쟁을 벌였고, 스펜스도 여기에 참여했다. 그 결과 1773년 8월 노덤버랜드 순회재판소는 자유인freemen의 청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뉴캐슬 시가 법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입법에 자유인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74년 6월에는 「뉴캐슬 타운 무어 법」이 만들어져 타운 무어의 토지 임대 상한선을 100에이커로 하고 기간도 7년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두 번째 글 「유아의 권리」는 스펜스가 런던에서 출판업자이자 문필가로 활동하던 시기인 1797년에 나온 글이다. 이는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 쓴 것이다. 페인이 늦었지만 시편과 로크의 주장, 즉 신이 인류의 자손에게 대지를 주셨고 인류에게 대지를 공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기쁘긴 하지만, 페인이 제시한 계획은 “정의롭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방책이라고 포문을 연다. 페인이 제안한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지불금stipends”은 “비열하고 모욕적인” 것이다. 토지 소유를 찬탈이라고 보는 스펜스에게 페인의 계획은 도둑이 훔친 것의 일부를 희생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 즉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에 반해 스펜스는 공유의 회복과 모두에 대한 배당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스펜스는 페인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 사고했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은 다음을 이용했다. “Property in Land, Every One’s Right” in Alstair Bonnett and Keith Armstrong (eds.), *Thomas Spence: The Poor Man’s Revolutionary* (2014). “The Rights of Infants” in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1982).

## 토지 소유, 만인의 권리

1775년 11월 뉴캐슬 철학회 강연

회장님,

제가 강연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 즉 사회 속에 사는 인류가 토지 소유에 대한 자연적이고 동등한 권리로부터 모든 이점과 자유 — 그러한 상태에서 인류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하는 — 를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이곳에 있는 훌륭한 동료들이 진리의 신실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류의 대의를 옹호함으로써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토지 소유와 자유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바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토착<sup>native</sup> 상태에 있는 어떤 민족<sup>people</sup>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적절하게도 그들 공동의 것이며, 여기서 각자에게는 동등한 소유권이 있으며 각자는 자유롭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동물, 과일, 기타 산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민족은 가장 이기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조차 그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함께 자기 나라 혹은 그 지역의 모든 이점을 획득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의거해서 살아야 합니까? 실제로 그들의 이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몇몇 분은 이제 반론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자기 나라 전체 혹은 공동의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팔거나 선물로 주는 것, 또는 자기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이 살아가고 가볍게 움직이는 데 더 큰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분명 그들의 것을 내놓을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고약한 일이 될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이 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양의 물질적 자원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생계 수단을 빼앗는 권리란 생명의 수단을 빼앗는 권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조에게는 그 후손에 대해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중략)

현재의 민족들nations의 출현 시기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수가 땅과 그 모든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마치 그들이 땅을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그 땅이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제작물인 것처럼 그러한 찬탈과 불의한 주장이 아무런 의문 없이 혹은 설명을 요구받지 않은 채 매우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 사이에 그것들이 분배되었으며, 그러한 찬탈과 불의한 주장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습적 사고 혹은 그와 동일한 것이 되

었고, 대지가 소수를 위해 혹은 소수에 의해 만들어졌고 대지를 세계에 사는 다른 피조물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그들의 소유라고 불려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인간이건 다른 피조물이건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풀잎 하나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주인들 말고는 땅 한 뼨도, 물도, 바위도, 건강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건 다른 모든 피조물이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의지하고, 땅에 의해 자라는 나무, 허브 등등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건, 증식하는 것이건, 노동하는 것이건, 싸우는 것이건 모두 자신의 주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 주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받아야 할 것으로 아주 점잖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계 수단을 주는 것을 통해 그들은 생명 자체를 주었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준 살아 있는 피조물 혹은 죽은 피조물이 산출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에게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알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모든 것이 충분한 주인들에게 가난하고 의존적이며 궁핍한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토지 보유자는 찬탈자이자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 자신의 땅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상속권, 구매 등등을 통해 최초의 토지 보유자로부터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유자는 앞선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랑스럽게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각자의 소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장을 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누구나 법률에 의해 여전히 자신의 소유에서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을 떠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아주 고통스럽게도 종종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모든 토지 보유자들은 같은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소유를 확고하게 틀어쥐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나머지 모든 인류는 하늘나라에 가야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상에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이 세계의 어디에서도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허락에는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는 대가가 지불되며, 그들은 많은 사람이 현재의 요구 수준에 대해 지불하기 어려움에도 허락의 조건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를 고수하는 한 그러한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지 생산자(Land-makers - 앞으로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 는 다른 제조업자들의 관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다른 제조업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취하며 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통해 살아가야만 하니, 따라서 토지 생산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류가 자유, 공기 혹은 태양의 빛과 열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동등하고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기 전에는, 그리고 자연이 준 공동의 선물을 인류가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는, 인류가 그 특권에서 기대할 수 있거나 기대해야 하는 모든 혜택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의 본질과 일치하는 더 많은 혜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나는 그러한 방법의 개요를 제시하려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모든 사람은 오랫동안 추론한 후에 모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모두가 자신의 자연권과 가능한 특권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생각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교구parish에서 해당 교구의 모든 주민이 모여 자치체corporation를 구성하는 날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교구는 자치체가 되며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구성원이 됩니다. 모든 교구의 땅과 거기에 부속되는 것이 자치체의 재산이 되며 지주가 자기 땅과 주택에 대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 정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교구에서 양도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재산의 일부를 팔거나 기부하는 교구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자신의 아이들을 노예로 팔거나 자신의 손으로 학살한 것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민족 전체가 엄숙하게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에는 교구 이외의 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각 교구는 자기 영토의 주권적인 지주입니다.

사람들이 교구 금고에 지불한 지대를 보관할 수도 있는데, 이 금고는 의회가 아무 때나 정부에 부여하는 총액 가운데 각 교구가 지불하는 몫을 보관하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대는 다음과 같은 것에도 쓰입니다. 자기 교구의 빈민과 실업자를 부양하고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자기 교구의 목사, 교사, 관리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데 쓰입니다. 자기 교구의 주택, 다리, 기타 건조물을 건설하고 보수하고 장식하는 데 쓰입니다. 보행자와 마차를 위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간선 도로, 통로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교역과 운항에 필요한 운하와 기타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불모지를 개척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경우 교구의 모든 거주민에게 필요한 화약고와 무기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농업을 장려하는 데, 그리고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전과 달리 사치, 우월감, 기타 모든 악덕과 부패 등을 뒷받침하고 확산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선출 과정에서의 부패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구의 전체 모임, 교구 위원회, 혹은 의회house of parliament에서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 모든 일은 투표balloting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표나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출은 전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다수 득표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말이나 문서를 통해 가능한 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구들에 대해 정부는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각 교구가 모든 소송에 대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심지어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사회의 편견에 맞서서 인류의 권리와 자유를 명예로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구의 판결은 상원house of lords의 판결에도 마찬가지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이들이 진리에 따라 발언하거나 투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의 지역 교구는 각각 의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때 동등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구는 이 대표자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동등하게 지불합니다. 그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선출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날 교구에서 제안되며, 이날 투표에 의해 즉각 선출되고, 대부분의 교구에서 다수를 얻는 사람이 대표자로 인정됩니다.

어떤 교구든 일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교구민 혹은 자치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보유하며, 다른 교구에서 일 년을 살게 되어 그 교구의 구성원이 될 때는 즉시 예전 교구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다시 그 교구에 일 년을 거주함으로써 이를 회복하기로 할 때까지 그러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동시에 두 교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누구든 언제나 하나의 교구의 구성원입니다.

그 나라의 국교회의 건물, 성직자 등등은 각 교구의 돈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국교도가 자신의 종교를 수립할 경우 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중략)

각 교구의 모든 사람men은 자신이 선택한 때에 장교, 무기, 깃발, 여러 종류의 군대 음악과 함께 완벽한 전쟁 기술을 배우고 유지하기

위해 들뜬에 모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군인이 됩니다! 이유 없이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이의를 달 권리가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인을 손에 넣는다면 노상강도나 해적보다 더 나쁘게 사용할 것입니다.

평화 시에는 돈을 받는 군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가 위협에 처하면 이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해외로 파견될 경우 그 군대는 새로 모집되거나 각 교구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됩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교구의 모든 업무에 대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매우 작은 규모의 농장으로 임대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식품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내야 하는 어떤 종류의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교구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등의 양, 질, 편의성에 따라 자기 교구에 내야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 빈민, 도로 등등은 모두 교구가 이 지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상품, 제조업 물품, 허가된 교역, 고용 혹은 소송actions 등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판매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절도나 살인 같은 일은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혹은 어떤 것은 세금이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지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소수의 거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지주들만을 부

양하는 것에 비해 지대는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물 품세 세리, 관세 세리, 세리, 군대, 연금생활자, 뇌물 수수 등등 나라를 쪼먹는 해충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곧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나 교구에 고용되어야 할 관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봉급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부양하기에 딱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일은 하찮은 것이며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략)

## 유아의 권리

“그리고 유아의 권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거만한 귀족이 콧대를 세우고 조롱하면서 외쳤다.

여성: 암곰과 여자 괴물에게 물어 보라. 그러면 그들은 모든 종 species의 새끼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단호한 말과 행동으로 이 새끼들의 권리는 지구상의 산물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행동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모든 억압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적절하게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이를 옹호할 것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유아의 권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마치 유아에게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유아가 자연

에서 이상하게 발생한 것이자 실패인 것처럼 말이다. 마치 그들이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젖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젖으로 만든 음식에 대한 권리가 없는가? 마치 그들에게 양육, 청결, 편안한 옷과 주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악당들 아닌가!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돋우는 질문을 하는가? 여우는 자기 굴이 있고, 하늘의 새는 둥지가 있는데, 인간의 아이들은 어디에 머리를 뉘어야 하는가? 짐승의 어미에게는 새끼를 기르려고 유방에서 젖을 생산하기 위해 풀을 먹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유아의 어머니는 그런 권리를 부정당해야 하는가? 이 지구는 짐승들의 공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유재이기도 한 것 아닌가? 우리는 허브나 베리나 너트 그리고 기타 피조물을 먹을 수 없는가? 우리에게는 어미 늑대처럼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사냥할 권리가 없는가? 우리에게는 어미 수달처럼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없는가? 혹은 뿔감을 구하기 위해 석탄을 캐거나 나무를 할 권리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면 자연은 우리만 제외한 그 수많은 동물 족속들에게 성찬을 마련해 준 것인가? 마치 슬픔은 우리만의 몫인 것처럼, 마치 우리와 우리의 무력한 아기들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말이다.

귀족(조롱하면서): 너의 성<sub>sex</sub>이 권리의 변론자이기도 한 것인가?

여성: 그렇다, 몰록Moloch들아! 우리의 성은 처음부터 권리의 옹호자였다. 다른 짐승 수컷과 마찬가지로 남성men은 자기 새끼들에게 태연하게 무관심하지만, 당신들은 자연은 그렇지 않았으며 우리에게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모든 전제자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이를 주장할 기백도 우리에게 있다. 당나귀 수컷처럼 남성은 수많은 지대, 십일조 등등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연약한 양심은 그런 것을 남성에게 부과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 우리 여성은 모든 종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큰 바구니를 갖다 버릴 것이다.

귀족: 그렇다면 너는 경작된 토지를 황무지로 바꾸고, 인디언처럼 야생 열매와 동물을 먹겠다는 것인가?

여성: 아니다, 이 퀘변가야. 우리는 인디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연의 열매는 분명 우리 공유재의 열매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상응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귀족: 너에게는 그러한 야생의 산물 대신에 빵과 양고기와 소고기와 텃밭 채소와 온갖 가공품과 풍요로운 예술과 노동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항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여성: 진심이나? 우리에게 정말로 항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빼앗아간 우리 공유재의 자연적 산물 대신에 정당한 보상으로 이러한 예술과 문화의 산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것들을 향유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느냐?

귀족: 분명 그러하다. 여성인 너는 남성의 노동과 재능의 과실을 공짜로 기대하는 게 아닌가! 우선 농부들은 자기 농장에 대해 너무 높은 지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그들은 땅을 갈고 거름을 주는 데, 가축을 먹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비용이 들지도 않았다. 분명 너는 이 남성들이 고된 일을 할 것이고 공짜로 너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여성: 제발 신사 숙녀 여러분, 당신들을 제외하고 누가 이 농부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식량을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겠는가? 공짜로 남성들에게서 그 노동을 뺏스럽게 빼앗아가는 것은 오직 특권 신분, 그리고 노상에서 이들을 변변치 않게 모방하는 자들[노상강도]뿐이다. 안 된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귀족다움과 신사다움을 만족시킨다면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것은 농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렇다면 전하, 당신이 말하는 농부들에게서 나오는 지대를 받는 것이 누구인가?

귀족: 물론 우리들이다. 우리가 지대를 받는다.

여성: 분명 당신이군! 사악한 당신은 누구인가? 누가 당신에게 우리 공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받을 권리를 주었는가?

귀족: 여성이여!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영지를 싸워서 얻거나 구매하였다.

여성: 잘도 자백하는구나, 악당아! 이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저주하겠다, 이 사악한 몰록들아! 뻔뻔하게도 너는 저주 받은 불한당 무리이며, 학살과 억압으로 대지의 소유권lordship과 지배권dominion을 찬탈하여, 울고 있는 유아와 그 불쌍한 어머니들을 배제하고 기아로 몰아넣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그렇게 부정하게 얻은 소유지의 구매자 아닌가? 아, 몰록보다 더 사악하구나! 이제 너의 비열한 찬탈로 죽어가는 수백만 아이들의 피가 너의 잔인한 머리 위로 흐를 것이다! 네가 뻔뻔하게 고백한 것처럼 너는 자연의 선물을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농부들에게 임대하여 돈을 착복했다. 그렇다, 악당아! 너는 말 못하고 의지할 데 없이 죽어가는 유아의 눈물과 한숨을 축적했다. 아, 너는 토지에서 나온 이득을 피로 물들인다! 너는 강도 무리다! 어떻게 너는 스스로를 신사, 숙녀라고 부르는가? 어떻게 너는 온화한 이름을 가지는가, 이 야수야? 아름답게 장식된 너의 문장과 방패가 네가 누리고 있는 지복의 기원이 피로 물든 야만적인 것임을 잘 보여 주는구나! 그러나 곧 그 뻔뻔한 고딕풍의 약탈의 상징은 계몽된 인민의 눈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며, 강탈자와 강탈당한 사람의 끔찍한 구별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가 빵과 고기를 먹기 위해 너희에게 지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농부들도 정당한 자연적 소유자인 우리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야생 열매, 우리의 수렵지, 우리의 물고기와 사냥감을, 그리고 우리의 석탄 광산, 우리의 숲을 기꺼이 포기한다면, 그 대신 우리는 지대를 받는 게 정당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뻔뻔하게 농부들이 우리 땅의 산물을 다시 우리에게 팔 수 있겠는가?



내 말을 들어라, 압제자야! 너희는 매일 호사스럽게 살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만 태양이 비치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인류와 짐승이 너희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고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너희의 그득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랄 뿐이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만 하늘이 풍요함을 내려 주고 대지는 풍요로워진다.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자연이 산출한 모든 것을 찬탈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아. 너희는 너무나 만족할 줄 모른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너희의 끔찍한 압제와 유아 살해는 끝났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도 끝났다. 처참한 감옥, 처참한 수용소, 처참한 오두막이라는 너희의 지옥 같은 술책도 끝났다. 대지 전체가 들고 일어나 새로운 창조에, 쇠막대기의 귀족 지배를 깬 것에, 영원한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기뻐 노래하는 것을 보라!

(중략)

전하, 당신에게 우리의 계획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당신 앞에 그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여성(왜냐하면 남성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은 모든 교구에서 여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임명하여 이미 임대된 주택과 토지의 임대료를 받게 할 것이고, 이후에 비게 되는 농장과 주택을 7년 기한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내는 입찰자에게 임대하게 할 것이다. 이 임대료에서 우리는 모든 세금 대신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상당한

돈을 정부에 보낼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세금이나 세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임대료에서 우리는 주택을 짓거나 수리하는 건축업자와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의 거리를 포장하고 청소하고 밝히는 데 임대료를 쓸 것이다. 우리의 행정관과 공무원의 봉급을 지불하는 데 임대료를 쓸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여성은 4분기마다 임대료가 들어올 때 은행이나 은행권 대신 현금으로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교구 모두 빚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 모든 공적 지출을 처리하고 난 후, 잉여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교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다.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했던 독신이건 상관없으며, 적자이건 서자이건 상관없으며, 막 태어난 아기부터 아주 노령까지 분배할 것이며, 부유한 농부와 상인 가족과 소규모 공동주택 · 오두막 · 정원에 적은 돈을 지불하는 가난한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배할 것이다.

(중략)

사분기마다 교구의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는 이 잉여분은 징수된 임대료 총액의 2/3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임대료 잉여분에 대한 몫은 문명사회에 사는 모든 인간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이는 문명과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서 박탈해 임대한 이들의 공유 토지라는 천연자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후략) 시대

## 저 낮은 서울대를 위하여

이건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토<sup>盛土</sup>를 꿈꾸었겠으나 우리는 당신의 폭정을 성토<sup>聲討</sup>한다  
낙<sup>樂</sup>을 피하였겠으나 우리는 그대의 낙<sup>落</sup>을 요구한다  
인제 떠나야 할 자는 8(12)인의 '선한 인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야 한다

한겨울 폭설보다 훨씬 더 살벌한 것은 바로 당신의 거침없는 폭언과  
희롱이었다  
신산한 제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그대는 오히려 즐긴 듯하였다  
갑질과 궤도 이탈은 조직적이었고 나이트가 늘어도 변곡점은 발견  
될 수 없었다

아! 이리도 '오염된' 서울대를 구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정도를 한참  
웃도는 자들에 대한 '구축성 구축<sup>構築性</sup>驅逐'을 수행해 내야 한다

## 시대의 의제를 선도하다, 김종철

안재성 소설가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의제를 선도하는 사람이다. 1991년에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창간으로 한국에서 생태주의의 문을 열었고, 2012년에는 녹색당을 창당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후에 제시한 기본소득은 수년 만에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소농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도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최근에 제시한 ‘추첨제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의제도 새로운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기존의 논리에 대한 비판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생산력 발전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발전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한국의 문화 풍토와 문학 평론에 만연한 지적 허영심에 이르기까지, 그의 날카로운 비평을 피해

갈 대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가, 오해도 많다. 당면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적 원칙만을 강조하는 원리주의자일 거라는 선입견은 인터뷰에 나선 필자도 긴장시켰다. 발전 반대론자인 만큼 핸드폰 같은 건 안 쓸 거라든지, 원리 원칙만 이야기하며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날카롭게 지적하리라는 예상이었다.

예상은 틀렸다. 2017년 8월 8일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시작된 만남은 술자리까지 거의 6시간이나 계속되었고, 선생이 하는 이야기마다 폭소를 터뜨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진보운동권을 포함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냉엄한 비평이 필자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은 데다, 다른 글에서는 볼 수 없던 선생의 성장기도 재미가 있었다.

문학, 정치, 환경,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선생의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도 않거니와 직접 본인의 글을 읽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리라. 『녹색평론』과 여타 지면에 실리는 글들과 『시와 역사적 상상력』, 『간디의 물레』,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등의 저서들은 주제가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으로 이뤄져 펍 읽기 쉽다. 요즘 지겹도록 보게 되는 번역체 문장들의 비비 꼬인 난해함이며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의 나열이 없어서 좋다. 대학을 나온 이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린 문장을 쓰는 이들은 김종철 선생에게 되게 맞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시하는 의제들이 단순한 것은 아니다. 특정 정책의 변화나 특정 법률의 개폐를 주장하는 소송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이 사회, 나아가 인간 사회 전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본원적인 지향을 갖고 있기에 꼭 읽어 볼 만하다.

## 1. 전쟁의 기억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이라고 하면 대구 사람일 거라는 추측도 여러 오해 중 하나다. 영남대에서 오래 교편을 잡은 결과 생긴 오해다. 지금도 영남대 교수라고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그만두고 서울로 옮긴 지가 13년이나 되었다.

고향은 경남 진동이다. 진동은 오늘날에는 행정구역상 창원시에 포함되어 있는, 마산에서 서쪽으로 길고 험한 진동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아늑한 어촌 겸 농촌 마을이다. 친가와 외가 모두 이 지역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머니는 딸 없이 아들만 다섯을 낳아 키웠는데, 그는 막내였다. 해방되고 이태 뒤 1947년 1월에 태어났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까지는 진주에서 살았다. 둘째 아들이던 아버지가 일제 치하에서 상업학교를 나와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진주의 한 운수회사에 회계과장으로 옮기면서 이사를 갔던 것이다.

국내에 대학이 거의 없던 식민지 시대의 상업학교나 농업학교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되 일본으로 유학 갈 경제력은 안 되는 청년들이 택하던 기술학교였다. 금융조합 서기 중에는 친일파라 불릴 정도로 협조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일상 업무에 충실한 그저 고지식한 소시민이었다. 진급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자식들을 큰 인물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없었다.

진주의 생활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다. 어린애의 시선으로 본 규모지만 마당이 무척 넓은 집으로 꽤 큰 텃밭에 토마토가 주렁주렁했던 것을 그는 기억한다. 집의 한쪽에 있던 광에 들어가면 늘 떡이나 꽃감